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명수 '수액'. 우리 그룹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뒤 생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수액은 '생명존중'이라는 기업 정신을 실천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이다. 하지만 수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임직원은 많지 않다. 2015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사보를 통해 우리 그룹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수액에 대해 조명한다.

“수익이 낮아도 포기할 수 없는 수액 생산”, 수액=사회공헌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이라면 한번쯤 맞게 되는 수액. 수액은 수술이나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약품이다. 만약 하루라도 수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그룹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뒤 혁신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수액 생산의 밑바탕에는 이 같은 '제약구세(약을 만들어 세상을 구한다)'의 정신이 담겨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는 수액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수분을 알아야 수액이 보인다?
2. 수액은 '水(물 수)'가 아닌 '輸(나를 수)다!
3. 수액으로 3대 영양소 공급 완료!
4. 수액이 장기 보존 역할도 한다?
5. 수액, 이렇게 만들어 진다!
6. 수액 용기의 변천사
7. 물 보다 싼 수액의 사회적 역할
8.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진출하는 수액
9. 수액과 함께한 사람들 I
10. 수액과 함께한 사람들 II



생수, 커피 한잔보다 저렴한 수액... '생명존중' 기업정신 담아 생산
 #“8,000,000원 vs 36,000,000,000원” 11t 트럭에 기초수액을 가득 채워 공급한다면 약 8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반면 같은 트럭에 비아그라 100mg을 채운다면 무려 360억 원의 수익이 창출된다. 기초수액이 비아그라와 같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11t 트럭 4,500대가 더 필요한 셈이다.

현재 보험약가 기준으로 500mL 용량의 포도당 5% 수액 가격은 1,167원이다. 이에 비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생수는 500원~1,600원,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는 비슷한 용량에 4,000원이 넘는다. 여기에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물류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기초수액사업은 한 마디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최근 수익성이 좋은 영양수액 시장에 많은 제약사가 뛰어들고 있지만 국내에서 기초수액을 만드는 제약사는 우리 그룹을 포함해 단 세군데 뿐이다. 이익에 비해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동 시스템이 요구되는 등 남는 게 없는 사업이라는 판단에 의해서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선 최소한 수액 제조사들이 적자를 보지 않도록 판매 상한가를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십 년 전 기초수액은 지금과 같은 보험약가가 아니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지표를 따랐어요. 우리가 가격을 책정할 수 없었죠. 그때도 입으로 마시는 음료수보다 수액이 더 저렴했습니다.” 수액스토리북 제작 TF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정규 전 JW홀딩스 상근 감사는 수익성이 박한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말했다. 또 “우리가 안 만들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는 있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수액 시장을 개척해 왔다”며 “수액사업 전반에는 우리 그룹의 기업인념인 ‘생명존중’의 철학이 깔려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은 퇴장방지의약품 보유... 수익률 낮아도 과감한 생산 인프라 투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금년 7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대체

제가 없는 필수약품에 대해 국가에서 원가를 보전해주는 대신 상한 판매가를 정하는 제도) 목록 자료에 따르면, 국내 661개 퇴장방지 의약품 중 우리 그룹이 108개의 가장 많은 퇴장방지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그룹이 생산하는 대표적인 퇴장방지의약품은 기초수액으로 1959년 처음 생산을 시작한 지 55년이 되는 지금까지 국내 수액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며 수액제 시장을 선도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 그룹에서 생산하는 수액제는 연간 8000만개. 이 중에는 고부가가치 영양수액도 있지만 전체 생산량의 75%인 6,000만개는 '환자의 생명수'라고 불리는 기초수액제다.

수액제는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산을 중단할 수 없다. 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를 위해 올해 초부터 보험가격을 일부 인상하는 등 수익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수액 사업에 우리 그룹은 지난 2006년 1,4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자동화 수액 생산 공장을 세워 국내의 의약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적십자 간호대학 조갑출 교수(경 중앙대학교 건강간호대학원 원장)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바보가 이룬 성공신화'라는 제목의 인상 깊은 글 한 편이 올라왔다. “세계에서 4번째로 건설된 수액전문공장은 이종호 회장의 생명사랑 정신과 사명감의 결정체다. 손해를 감내하고 투자를 결정한 이 회장은 자신을 일컬어 스스로 '나 같은 바보는 금세기에 나 하나로 끝을 맺길 바란다'고 했다.” 조 교수는 간호협회 대표자회의 관계로 당진 공장을 방문해 이종호 회장을 만난 후 이 회장의 경영철학과 기업가 정신에 감동했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긴 것이다. 사회적 역할에 남다른 책임감으로 오늘도 JW당진생산단지에서의 수액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JW

